

진 청315-334

본론 (원문 및 해석)

三一五

목불근山上雉¹⁾와혜에안근松骨²⁾이와/집압논무살미³⁾에고기엇는⁴⁾白鷺 | 로다/草堂⁵⁾에너희
곳아니면날보내기⁶⁾어려왜라.

산에는 목불근 장끼가 날고 집안에는 혜에 앉은 송골매가 있도다. 또한 집앞에 물을 대고
사래질 한 논에는 고기를 엿보는 백로가 있구나. 이 초당에 너희들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보
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로다.

감상 - 초당에 홀로 지내는 이가 장끼, 송골매, 백로를 보며 적적함을 달래고 있는 듯 하
다. 혼자이기엔 외롭지만 그러한 새들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는 느낌이다. 참으로 한가한
분위기이다.

三一六

씩업슨손이오나늘⁷⁾갓버슨主人이나셔/여나모亭子⁸⁾에박將碁⁹⁾버려노코/아히야濁酒걸러라
외안원들못머그라

시도 때도 없이 찾아 드는 손님이 오기에 갓을 벗은 채로 맞아들인다. 여남은 칸이나 되는
넓은 정자 아래에 바둑·장기판이 벌어지는구나. 아이야, 탁주(막걸리) 걸러와라. 오이 안주
엔들 못 먹겠느냐

감상 - 갓을 쓰고 손님을 맞는 것이 예의인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레 손님이 찾아왔
다.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아닐까 한다. 그 손님과 정자에 앉아 바둑·장기를 두고 아이
에게 오이 안주라도 괜찮으니 술상을 봐오라고 하고 있다.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
이라 하여 바쁠 듯 하지만 이 역시 한가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

三一七

새벽비일¹⁰⁾갠날에닐거스라¹¹⁾아히들아/뒷피혜고사리흐마¹²⁾아니즈라시라¹³⁾/오늘은일것거

-
- 1) 山上雉(산상치) - 산에 사는 목이 붉은 장끼
 - 2) 松骨(송골) - 매의 일종. 새끼매를 말함
 - 3) 무살미 - 논에 물을 대고 사래질 한 논
 - 4) 엿는 - 엿보는
 - 5) 草堂 - 원채에서 따로 떨어진 판채.
 - 6) 날보내기 - 나날을 보내기
 - 7) 썩없슨 손이 오나늘 - 때없이 손님이 오기에
 - 8) 여나모 亭子 - 여남은 칸의 정자. 열칸이 더 되는 정자
 - 9) 박將碁 - 바둑과 장기
 - 10) 일 - 일찍
 - 11) 닐거스라 - 일어나거라
 - 12) 하마 - 이미

오느라¹⁴새술안주허리라

오늘은 새벽비가 일찍 갠 날이니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뒷산에 고사리가 이미 아니 자랐겠느냐(다 자랐을 것이다) 오늘은 일찍 꺾어 오너라 새 술 안주 허리라

감상 - 새벽에 비가 내렸고 또 이른 아침에 그쳤으니 고사리가 다 자랐을 것이다. 잘은 모르겠으나 고사리가 이 때 다 자라는가 보다. 그 싱싱한 고사리를 따다가 또 새로 빻은 술에 안주를 하겠다니 이 어찌 아니 좋을까.

三一八

還上¹⁵도 ㅌ¹⁶와 잇고 小川魚¹⁷도 어 더 잇고/비즌술새로 익고 산에 달이 밝았어라 꽃 피고 거문고 있으니 벗 청하여 놀리라

환상도 받아와 있고 소천어도 얻어 있네 빻은 술 새로 익고 산에 달이 밝았어라 꽃 피고 거문고 있으니 벗 청하여 놀리라

감상 - 어쨌든 곡식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로 빻은 술도 익었고 산에는 달이 밝았고 꽃이 피고 거문고도 있으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. 이런 날이라면 벗과 아니 놀 수 없을 것이다.

三一九

집方席 내지 마라 落葉엔 들 못안즈라/술 불혀지 마라¹⁸어 제진 들도 다 온다/아히야濁酒山菜 | ㄹ 만정업다 말고 내여라

짚 방석 내놓지 말아라. 낙엽이라고 해서 앉지 못하겠느냐. 소나무 광술 불을 켜지 말아라. 어제 진 달이 돌아온다. 아이야 탁주와 산채일 망정 없다 말고 내놓아라.

감상 - 방석 위에 앉든 낙엽 위에 앉든 상관없고, 소나무 광술 불을 켜면 어제 진 달이 돌아오니 켜지 말고, 탁주와 산채라도 상관 없다. 이런 것 저런 것 다 상관없다 한다.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.

右野趣(우야취)

三二〇

13) 자르시라 - 자랐겠느냐

14) 일 것거 오느라 - 일찍 꺾어 오너라

15) 還上 - 조선조때 각 고을의 관고, 저곡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.
還子

16) ㅌ - 받아

17) 小川魚 - 냇가의 작은 물고기

18) 혀지마라 - 켜지 마라

世上이말하거늘 찢치고드러가니19)/一頃荒田20)과八百桑株21)뿐이로다/生利야不足다마는 시
름업서호노라

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말들이 많아서 속세를 떠나서 강산으로 들어가니, 하나
의 거친 밭에 팔백의 뽕나무 숲이 있을 뿐이로구나. 농사를 지어서 생기는 이익은 부족 하
다마는 시름이 없으니 이를 좋아한다.

감상 - 어지러운 세상에 있는 것 보다는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니 강산에서 사는 것이
낫다는 내용이다. 때로는 복잡한 일상에서 떠나 한가로이 지내고 싶기도 하다.

三二一

忠誠이첫뜻이러니님으뢰야22)마환제고23)/두어라엇지호리天分이그려커니/출하리江湖에主
人되야이世界를니즈리라

충성이 첫 뜻이었으나 님 때문에 말았다 두어라 어찌하리 천분이 그렇거니 차라리 강호에
주인되어 이 (속세, 권력의)세계를 잊으리라

감상 - 주군께 충성하려 하였으나 충언은 듣지 않고 간사한 말만 듣는 주군이 원망스러워
그 곁을 떠나 강호에서 마음 편히 살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조이다. 남이 해주는 충고는 귀
에 거슬리기 마련이다.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군자라 할 수 있겠다.

右隱遯(우은둔)

三二二

비오는 날들에 가랴사립닫고쇼머겨라/마히24)미양25)이랴장기연장다스려라/쉬다가개는 놀보
와스래26)긴밧갈리라

장마철 비오는 날에 들에 가랴. 사립문 닫고 소 먹여라. 장마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겠느냐?
애야 쟁기, 연장 손질하여라. 쉬었다가 날이 개는 것을 보아서 사래 긴 뒷밭을 갈겠노라

감상 - 장마철이라 일손을 놓고 있지만 곧 장마가 지나갈테니 일할 준비를 하라 말하고 있
다.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.

三二三

19) 찢치고 드러가니 - 내팽개치고(버리고) 강산으로 들어가니

20) 一頃荒田(일경황진) - 하나의 거친 밭

21) 八百桑株(팔백상주) - 팔백그루가 심어져 있는 뽕나무 밭

22) 님으뢰야 - 님으로야

23) 마환제고 - 말은지고

24) 마히 - 장마

25) 미양 - 항상

26) 이랑

삿갓세되롱이²⁷⁾넙고細雨中에 호미메고/山田을훗미다가²⁸⁾綠陰에누어시니²⁹⁾/牧童이牛羊을
모라좁든날을씨와다

아침나절에는 비가 오기에 삿갓을 쓰고 도롱이 입고, 가랑비 내리는 가운데 호미 메고 산
전을 휘둘러 풀을 매다가 녹음에 누워 있는데 양치기 목동이 소와 양을 몰고와서 나를 깨
운다.

감상 -

三二四

대초불불근골에밤은어이뜻도르며³⁰⁾/벼빔그르헤게논어이느리논고³¹⁾/술닉차체장스도라가
니아니먹고어이리

대추의 불 붉어가니 밤이 또한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 어이 나타나는가 술 익자 체 장
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
황희

감상 - 가을이 되어 대추빛이 붉어가고 밤이 익어 떨어지고 맛난 게가 논에 나타나고 술익
으니 체장사도 돌아갔다. 가을이 되어 모든 것이 풍성해 졌으니 이제 쉬며 먹어야 한다고
말하고 있다.

三二五

오려³²⁾고개속고열무우³³⁾술젖는떡/낙시에고기물고게논어이느리논고³⁴⁾/아마도農家에몰근
맛시이쥬흔가호노라

이른 벼 벌써 익어서 고개 속이고, 열무는 살이 올라 크게도 자랐다. 낙시에는 고기가 많이
물리고 참게는 어찌하여 잘도 잡히는가 아마도 농가의 맑은 맛이 이 좋은가 하노라

감상 - 가을, 모든 것이 성숙한 계절이다. 벼 벨 때 되고 열무도 따다 먹을 때 되었고, 물고
기와 참게도 잘 잡히니 이런 것들의 맛이 너무나 좋을 듯 하다.

右田家(우전가)

三二六

27) 되롱이 - 띠 따위로 엮어 어깨에 걸쳐 두르는 우장의 한가지

28) 훗미다가 - 휘둘러 풀을 매다가, 정신없이 빨리 매다가

29) 누어시니 - 누워있으니

30) 뜻도르며 - 떨어지며

31) 나타나다

32) 오려 - 이른 벼

33) 열무우 - 어린 무

34) 너리논고 - 잡히는가

치위³⁵)를마글선정구타야비단옷가/고픈비메을선정山菜라타관계하라/이맛기잡시름업스면
기조흔기호노라

추위만 막으면 됐지 구태여 비단 옷 입을 필요 있는가 고픈 배 채우면 됐지 산채라하나 관
계하라 이밖에 잡시름 없으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

감상 -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좋으나 잡시름만 없으면 좋겠다 한다.

三二七

시름이업슬선정富貴功名관계하며/마음이편홀선정놀이웃다어이호리/엇더타守拙³⁶)安貧³⁷)
을나는조화호노라

시름이 없을지언정 부귀공명 관계하며 마음이 편할지언정 남이 웃어도 어이하리 진실로 수
졸안빈을 나는 좋아하노라

감상 - 부유한 것과 귀한 것과 이름을 떨치는 것. 시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나 가난하더라도
도 시름이 없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을 택하겠다는 마음이다.

三二八

내오시³⁸)내밥먹고내집의누어시니/귀에잡말업고是非에걸릴소냐/百年을이리지내미기分인
가호노라

내 옷에 내 밥 먹고 내 집에 누웠으니 귀에 잡말 없고 시비에 걸릴소냐 백년을 이리 지냄
이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

감상 - 옷, 밥, 집 모두 내것이다. 내것 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. 누가 뭐라고 할 사
람도 없으니 너무나 좋다.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
맞는 듯 하다.

右守分(우수분)

三二九

이성저성³⁹)다지내고호롱하롱인⁴⁰)일업니/功名도어근버근世事도싱슴상슴/每日에흔蠹두蠹
호여이렁저렁호리다

35) 치위 - 추위

36) 세태에 적응하지 않고 우직한 태도를 고집함

37) 가난한데서도 안락한 마음을 지님

38) 오시 - 옷에

39) 이렇게 저렇게

40) 이룩한

이렇게 저렇게 다 지내고 이룩한 일 없네 공명도 어근버근 세상일도 싱숭생숭 매일에 한 잔 두 잔 하여 이렇게 저렇게 살리다

감상 - 살면서 이룩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럴터이다. 그리하니 부귀공명, 세상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. 술이나 마시며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.

三三〇

이렇타저러탓말이오로다두리슌슌/잇거나사거나기픈蠹에 ㄹ득부어/每日에 長醉不醒⁴¹⁾하면
괴조흔가호노라

이렇다 저렇단 말이 오로지 모두 그저 그렇다 있는 것이거나 사는 것이거나 깊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매일 취하기만 하고 깨지 않는 것이 좋은가 하노라

감상 - 세상일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저 그런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술을 마시는 것은 이 일을 번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.

三三一

어리거든채⁴²⁾어리거나밋치거든채밋치거나/어린듯밋친듯아는듯모로논듯/이런가저런가
하니아프란줄몰래라⁴³⁾

어리석거든 어리석은대로 어리석거나, 미치거들랑 미친 대로 미치거나, 어리석은 것도 같고 미친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구나. 이런 가도 같고 저런가도 같으니 어떤 지 모르겠구나

감상 -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, 정말 이 시조는 어떤지 모르겠다.

三三二

世事 | 삼썬울⁴⁴⁾이라허틀고⁴⁵⁾미쳐세라/거귀여드리치고나몰래라호고라자/아히야덩덕궁북
쳐라이야지야호리라

세상일이 삼거울과 같아서 흐트러지고, 막히고 구겨지고 들이치나 나 몰라라 하고싶다 아
이야 덩더꿍 북쳐라 이야지야하리라

감상 - 흐트러지고, 막히고, 구겨지고, 들이친 세상. 그런 세상이라면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.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나으리라.

41) 長醉不醒 - 취하기만 하고 깨지 않는 것

42) 채 - 아직 덜되어서. 못미쳐서

43) 아프란 줄 몰래라 - 어떤 줄을 모르겠다

44) 삼썬울 - 삼거울

45) 허틀고 - 흐트러지고

右放浪(우방랑)

三三三

그러 흐 거니⁴⁶⁾어이아니그러 흐 리/이리도⁴⁷⁾그러그러져 리도⁴⁸⁾그러그러⁴⁹⁾/아마도그러그러 흐
니 한숨겨워⁵⁰⁾흐노라

사람의 삶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운명이 있을 진데,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와 같으니
나라고 해서 어찌 아니 그와 같지 않으리요. 이리 보아도 그렇고 그렇구려, 저리 보아도 그
렇고 그렇구려. 아마도 세상사 모두가 그와 같으리니 한숨 겨워 할 뿐이로다.

감상 - 그러한 것이니 그러하고 이리한 것 저리한 것도 그러하고 그냥 그러하기만 하니 한
숨 겨울 뿐이다. 이 시조를 읊으면 정말 한숨겹다.

三三四

홍홍노래 흐고 덩덕궁복을치고/宮商角徵羽⁵¹⁾를마초리썩 흐엿드니/어긔고다齟齬⁵²⁾흐니허허
웃고마노라

홍홍 노래하고 덩덕꿍 북을 치고 궁상각치우 맞추는 모습을 하였더니 어긔고 다 어긔나니
허허 웃고 마노라

감상 - 무엇인가 맞추어 보려 하였더니 다 어겨버리고 어긔나버리니 허탈해서 웃을 수 밖
에 없다.

46) 그러흐거니 - 그와 같으니

47) 이리도 - 이리해도

48) 저리도 - 저리해도

49) 그러그러 - 그렇고 그렇구려

50) 겨워 - 겨우, 이기지 못하여

51) 오음의 각 명칭

52) 음악상의 선율에 의한 배열, 궁을 주음으로 하고, 궁의 위 오도음을 치, 치의 위 오도음을 상, 상 위의 오도음을 우, 우의 위 오도음을 각이라 함